메리츠 금융 Daily

2020. 7. 8

은행/지주 Analyst 은경완
02. 6454-4870
kw.eun@meritz.co.kr

보험/증권 Analyst 김고은
02. 6454-4871
goenkim@meritz.co.kr

meritz 메리츠증권

News

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…與 양도세율 최고80% 입법 추진 — 연합뉴스

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%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

강병원 의원,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...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80%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는 내용

은성수 "은행·네이버 공정경쟁 환경 마련" — 매일경제

은성수 금융위원장, "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…금융 분야 인증 · 신원 확인 제도 혁신 방안도 올해 3분기 중에 마련"

"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 규제 차익 문제, 금융회사와 연계 · 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"

"메리트 없다"…2차 코로나 대출도 두달째 제자리걸음 — 데일리안

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대출(일명 코로나 대출) 지원에 나섰지만 한도 소진율이 한자릿수에 머물러…

7곳 은행 3일까지 대출 실행액 총 7,079억원…소진율 7%에 그쳐...1차도 부진…"높은 금리 · 낮은 한도에 재난지원금 효과로 수요↓"

금감원, 우리은행 '비밀번호 무단 변경' 16일 제재심 올린다 — 연합뉴스

금감원은 2018년 10~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(정보기술)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16일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

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...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· 과태료 수위를 정할 예정

재난지원금 85% 소진…카드사용액 다시 쪼그라들라 — 이데일리

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1~4주차(6월 29 · 30일 제외) 국내 개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1조3,147억원으로 집계…전년 대비 약 4.8%(1조8,750억원) 증가

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지난달에도 이어진 것...대부분의 지원금이 소비된 만큼, 이달부터는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

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세 지속…"보험료인상·코로나19 효과" — 연합뉴스

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곳 가운데 8곳의 상반기 손해율이 작년보다 1.5~12.3%포인트(p) 낮은 것으로 잠정 집계

롯데손해보험, 작년 상반기보다 손해율이 12.3%p나 낮아졌고, 메리츠화재(4.0%p), KB손해보험(3.3%p), DB손해보험(3.2%p) 등도 3%p 이상 손해율 개선

정부 "주식형펀드 기본공제·금투소득 원천징수 기한 더 검토" — 연합뉴스

정부, 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 시사

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, "...급하게 갈 사안은 아니고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...이 방안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... 이번에는 뼈대만 만들고 내년도 있으므로 계속 보완..."

'혁신금융 총아' P2P금융, 무섭게 오르는 '연체율' 시한폭탄 — 머니S

금융위, 6월3일 기준 241개 P2P업체의 누적대출금액은 10조3,251억원에 달해...2017년 말 1조6,820억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액은 3년 만에 9배 이상 증가

연체율은 5.5%에서 16.6%로 3배 이상 뛰어...수많은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투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과 금융시장 신뢰도 저하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